



##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5. 8. 26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렘29:12)

주님께 부르짖으며 늘 가까이 나아가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소망과 감사로 루마니아 소식 드립니다.

### ♣ 여름방학기간의 주일학교

루마니아 주일학교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한 여름방학은 9월 중순까지 3개월간 계속됩니다.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적기에 이 방학 기간은 주일학교의 신앙 성장과 부흥을 위해 참 좋은 시간입니다. 방학이 시작되자 미국 선교팀이 방문하여 주일학교를 위한 많은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학 전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던 펠디와라 교회 아이들과 아라치 교회 아이들이 방학 동안 시간을 투자해 악기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해진 펠디와라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은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펠디와라 교회와 아라치 교회 아이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훈련을 하고 있고, 9월 초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8월 31일)에는 펠디와라 교회 청소년 3명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 ♣ 단기선교팀 방문

6월 24일(화)부터 6월 30일(일)까지 일정으로 미국 뉴욕의 CMC 교회에서 13명의 단기선교팀이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주일학교 사역을 힘껏 도왔고, 함께 사역을

했던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펠디와라와 아라치, 불칸과 꼬틀레아 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함께하였습니다. 함께 온 몇 명의 청소년 선교팀원들까지 힘껏 준비하여 온 것들을 은혜 가운데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디누 전도사가 선교팀이 떠난 후에도 멀리서 와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애썼던 선교팀을 기억하며 큰 도전이 되었다고 반복하는 것을 들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 ♣ 사역 가운데 인내를 배우며 소망하는 것(기)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늘 체험하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시 아이들 사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라치 지역의 집시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자녀들의 교육에 거의 관심이 없는 많은 부모들의 싸늘한 반응을 기억하지만 시간이 제법 지난 지금은 많은 부모들이 진정성을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시 자녀들의 학부모들을 만나 늘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전히 자녀 교육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권면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한 열네 살 정도부터 여자 아이들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전통과 문화가 되어 있기에 부모들에게 이런 일을 피하도록 권면해 왔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엔 열다섯 살 이전에 가정을 꾸리는 여자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철저히 자녀들의 고등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들일지라도, 루마니아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이 꿈꾸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도록 큰 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지혜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투자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열매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명의 아이들이 대학 입학에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으로 잘 무장하는 가운데 꿈을 품고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 소망의 뜨르너베니 교회

뜨르너베니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병이 중하여 육체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천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시들은 물질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건강을 살피지 못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엔 교회의 일꾼이던 안수집사 알베르트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애써 섬기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장로로 섬기고 있는 야노스 형제도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잘 회복될 수 있었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 ♣ 은혜를 구하며

매년 한 번씩 있는 동유럽 한인 선교사 수련회(8월 12일-8월 15)가 체코에서 열렸는데, 이명자 선교사가 임원이기에 준비하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9월 초부터 계속될 여성 사역자 기도 모임과 현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기도 제목

1. 여름방학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두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2. 브라쇼브 교회 지도자들과 여성 사역자들이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3.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굳건히 서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도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지어다 아멘” (롬11:36)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